

# “혁신도시 교육·교통·의료 정주여건 개선해 달라”

## 나주 빛가람 이전기관들 요구 전남도, KTX 증차 등 지원 전력거래소 9번째 이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기관들이 전남도에 교육·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들 기관들의 의견을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지난 2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홍보관에서 이전공공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연관기업 유치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상생의 지역 공동체 조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이전을 완료한 7개 기관뿐만 아니라, 10월 이후 이전 예정인 한전KDN을 비롯한 4개 기관 등 모두 11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수도권 및 세종시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노선 신설 및 KTX 12회 증차 운행, 국악 공연 및 남도문화 탐방 실시, 주말 관광지 순환버스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남도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도는 이전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민과 잘 융화되길 당부하는 한편 이전기관 연관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에도 아낌없는 협조를 요청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올해까지 전체 16개 기관 가운데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비롯해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만큼 이전 ‘속도’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지만, 이에 반해 편의·의료시설 등은 크게 부족해 이주 직원 및 가족들의 불만이 높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 1409명의 임직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는 전체의 17.3%인 244명에 불과한 것도 수도권보다 교육·생활·문화·교통 등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산계층인 이들 직원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혁신도시 안에 보육시설이나 가정 ‘혁신

중·고교’ 설립이 지연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큰 결핍들로 작용하고 있으며, 영화관, 쇼핑센터, 학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아직 혁신도시 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사에서 나주시 빛가람동 신청사로 이전,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전력거래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중 아홉 번째로 입주하며, 302명이 근무하게 된다. 신청사는 부지 4만4132㎡, 건축 연면적 2만1557㎡, 지상 9층 건물로 건축됐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전력시장의 운영, 실시간 급전 운영, 전력수급 기본계획수립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4월 설립, 전력의 거래 업무,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전력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 지방선거 불법 사례 5건

### 광주시선관위, 검찰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 광주시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교육감 선거 관련이 1건, 기초단체장 1건, 기초의원 선거 3건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불법으로 현금 8400만원을 사용하고 홍보를 대가로 언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측근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인당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기초의원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은 선거 비용을 누락하거나 초과 지출하고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택 광주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적발이 가능했다”며 “불법 선거 비용 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

### 불법 중개행위 15건 적발

전남도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불법 중개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혁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되자 142개 업소를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중개보조금 고용·중개업소 이전 미신고, 계약서 작성 소홀 등 사례가 각 1건씩 확인됐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의무 위반이 8건이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간판에 중개사 명칭 미사용 및 대표자 성명 미기재 사례 등도 6건이 확인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제 점검보다는 부정적, 점조직 형태로 점검을 실시해 다단계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7년만에 화산 폭발  
지난 27일 일본 나가노(長野)현과 기후(岐阜)현에 걸친 온타케산(御嶽山·3067m) 정상 분화구에서 화산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년만의 온타케산 재분화로 등산객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DJ 차명 12조’ 허위 유포 명예훼손 혐의 누리꾼 고소 이희호 여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 26일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누리꾼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김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게시판에 [특보] 김대중 차명 계좌 12조6400억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사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터넷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다음 카페에 ‘김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원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여사가 지난해 말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하고 고인과 유가족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보도를 했음에도 다시 악의적 내용을 다음 카페에 올린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산구청장 친인척 ‘마을기업사업’ 잇단 선정... 일부 불법 사용”

### 조상현 구의원 주장... 민형배 청장 “공모 통해 공정 선정”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친인척이 광산구 ‘마을기업사업’ 보조금 대상자로 연이어 선정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상현 광산구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02회 광주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민형배 구청장의 친인척인 민모 목사가 지난해 6월 마을기업사업 보조금을 수령해 사업 목적 외에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민 목사와 그의 부인이 투게터광산 나눔재단 보조금 사업 등에도 다수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민 목사는 민형배 구청장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민 목사는 지난해 6월 마을기업 사업(참좋은마을 수완동)에 선정돼 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민 목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 분쟁이 발생

하자 마을기업사업을 포기하고 결국 보조금 반납을 전제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 목사는 해당 예산을 자신이 속한 협동조합에 지원해달라고 변경 신청해 반납하기로 한 마을기업 보조금을 타냈다.

나아가 민 목사는 이 보조금 일부를 자신이 목회자로 활동하는 J교회 인터리어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교회는 2010년 7월30일 사용승인이 됐지

만 그해 11월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광산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고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 청장은 답변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뿌리깊은 사람 사업’은 투게터광산 나눔문화재단 등에서 신청자를 공모한 뒤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구청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씨 부부가 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두 건의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이행부 심사와 복지부 운영평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개인이 아닌 법인, 시설에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림’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텍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에드를레이저: 스무스빔,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세오 레이저: 쉐들러스, 다이오우드제오
- ④ 피부 미백: 쉐들러스, 쉐들러스, 쉐들러스
- ⑤ 주름·흉터: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락셀, 프락셀
-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점
- ⑦ 비만: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문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